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4년 10월 발행 (제 54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무료배부

나팔 HP: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 ◎권두 메시지 '성소의 터까지 파헤쳤다' 예레미야
- ◎간증 '하나님에게 복종을 선택한다면' E3
-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성소의 터까지 파헤쳤다' by 예레미야

오늘은 "성소의 터까지 파헤쳤다"라는 테마로 알아보시다.

<성소의 기초가 파헤쳐진 것은 예언되어 있었다>

성경은 짐승의 나라의 역사에서 종말의 날에 성소의 기초가 전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8: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에 그려져 있는 "성소의 기초"가 파헤쳐진다는 것은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것을 생각에 원래 문제가 있는 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생각해봅시다. 성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하 28:10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소는 곧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있는 것은 종말의 날에 짐승 국가의 대두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 기초, 토대가 파헤쳐진다는 것입니다.

<마태 복음 24 장도 같은 날을 예언>

그런데 이 일 성전의 기초가 전복은 사실 이전 본 마태 24 장 성전의 붕괴에 대한 다음의 예언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24: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마태복음 24 장의 주님께서 종말의 날을 예언 한 성경 구절로 유명한 곳이지만, 여기서도 종말의 날에 일어날 성전 붕괴 성전의 돌의 붕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의 붕괴가 종말의 날에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돌, 토대가 허물어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종말의 날에 일어날 성전의 붕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시작 부분의 다니엘서 이 마태 복음 24 장 모두 종말의 날에 일어나는 큰 사건으로 성전의 붕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살펴 때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성전 돌, 기초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성소의 기본은 전복"으로 성전 (성소)의 어떤 부분도 아니고 특정 부분, 즉 성전 기, 기초, 토대, 기초석에 대해 언급 것입니다.

이 것은 좀 이상이라면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의 중심 장소이며 성전에 대해 주목할만한 것을 기재해야 할 중요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는 언약궤라든지 마나 화병, 빵 책상, 촛대 등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종말에 관한 성경의 설명은 이러한 어느 것에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성전의 돌이 무너 뜨리게 되는 것, 기초석이 무너지게 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성전의 토대, 기초석의 의미는?>

성전 돌, 기초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돌에 대해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궁 돌, 기초석은 사도들과 선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석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를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의 기초가 전복 성전이 붕괴한다는 때 물자 일만에 눈 중지해야 아니라 반대로 설사의 의미에 눈을 고정 신약의 성소이며, 궁 이다 교회의 붕괴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소 성전의 붕괴를 생각할 때, 비록 이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해 아니냐"고 질타 된 것처럼 성경의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 계시록을 비롯한 종말의 설명은 비록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비록 이해는 필수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위치에 따라한다면, 신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에 궁이 붕괴하는 때 물자 건물에 구매하는 것은 비논리적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 인 교회의 붕괴를 찌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 3 성전이 세워진 것은 있을 수 없다>

궁 대한 질문과 제 3 성전의 재건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성전의 조각도 없는 예루살렘에 중 제 3 성전이 재건되어 그 재건 된 성전이 미래 붕괴하는 일을 그리스도가 예언 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류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봅시다. 현재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 하나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도 어디든지 세우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건립 할 땅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점은 그 장소에는 이미 이슬람 황금 돔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세계 수십 억 존재하는 무슬림에게 3 대 성지의 하나이며, 그들에게 가지고 가고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이 땅을 무조건 공터가 되어, 이 땅에 새로운 제 3 성전이 세워질

가능성 등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즉, 제 3 성전은 있을 수 없는 환상의 계획 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말 예언에 관련하여 물질적 인 성전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훌륭하게 물자 성전 재건한다는 등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용서 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 물자 궁이 완전히 붕괴하고 있다. 2, 재건 전혀 불가능하다. 이러한 통해 우리에게 뭔가 생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물질적 인 성전의 붕괴라는 것을 생각보다 더 설사의 의미로 성전의 붕괴에 대해 생각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다니엘 8 장의 설명을 살펴본다>

그런데, 상기 이해를 바탕으로 성소의 기초가 전복되는 것을 말한다 다니엘 8 장의 설명을 좀 더 살펴 봅시다.

다니엘 8: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짐승의 나라가 커지고, 힘을 길러 천군에 도달, 별의 군대에 도달 할 수 적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천군 별의 군대는 다음 아브라함 진술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인 이스라엘, 또한 신약의 이스라엘 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곳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별은 아브라함의 후손 인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신약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병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신약의 이스라엘인 기독교야말로 하늘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커지고, 천군에 도달"라는 의미는 종말의 날에 짐승의 나라가 힘을 실어 하늘의 군대 인, 기독교인, 그리스도 교회에까지 도달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을 말함 것입니다.

"별의 군대 중 일부를 땅에 떨어 뜨리고, 이를 짓밟고"

짐승의 나라의 영향 아래에서 별의 군대, 즉 그리스도 교회의 여러 교단이 땅에 떨어지는 세상에 불을 것으로 되는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본래 하늘이며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만,이 짐승 국가의 교회 간섭 그리스도인의 간섭에 의해, 교회, 교단의 일부는 땅에 떨어진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짐승의 나라 인 미국에서는 이미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거국적으로 올바른 기독교인을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없는,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따라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교와 반대 시위를 벌이는 기독교인은 체포되거나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동성애에 찬성하는 기독교인은 매우이 나라에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 짐승의 나라가 나라를 주어 하늘 인 기독교인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8: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군대의 길이는 수수께끼 감춰진 표현이지만, 군대가 신약의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대의 길이는 즉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하면,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있으리라 것인지 짐승의 나라는 예수의 지위 마저 박탈하고 자신들이 세운 왕이다 적 그리스도에게 개구리, 것이 여기에서 썩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기울인다 두려운 날이 여기에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제물은 내세워진다"

소제물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그 기술이 있습니다.

민수기 4:16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말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기에서는 항상 바치는 곡식 제물, 관유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들이 항상 바치는 예물입니다. 이들은 비록이며, 곡물 빵, 즉 말씀 제사, 즉 예배 드리는 메시지를 비유 한 것입니다. 관유는 예배에서 내려지는 기름 성령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항상 바치는 제물이 끊기는 즉 교회 안에서, 또 올바른 메시지가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 질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한 구세주이다는 올바른 가르침은 말씀 양게되는 것입니다.

"그 성소의 토대는 파헤쳐진다."

성소는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급진파"는 에베소서에서 써있는대로, 사도들과 선지자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모두 전복, 뒤집어 질에 관해서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 안정이 없는 재림, 휴거 등 모든 교회의 토대 가르침이 다, 뒤집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수했다 가르치고 과학적이지 못한 가르침으로 공공의 교회에서 추방됩니다.

다니엘 8: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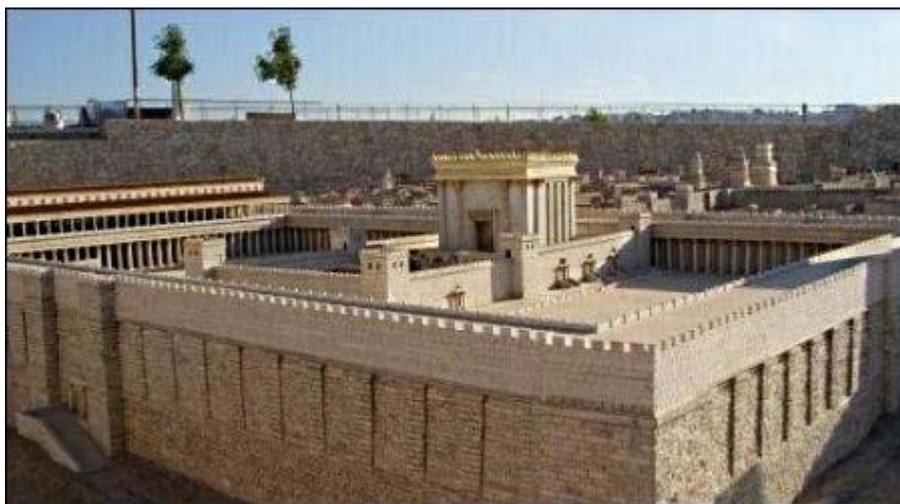
군대는 전달,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가 짐승의 나라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사 임명, 또한 교리의 제정 등은 모두 짐승의 나라 미국의 지배 나 승인없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없이 마음대로 가정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목사가 체포 벌금형을 받고 있습니다.

"소제물 대신 허물을 헌신했다."

소제물, 즉 하나님에 정진되어야 올바른 메시지 대신 허물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없는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등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말하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뿔은 진리를 땅에 던져 자의적으로 대접 그것을 이뤘다."



성전의 토대는 파헤쳐진다 (이미지)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는 던져지게 됩니다. 또 지옥도 심판도 없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의 진리는 땅 즉 세상적인 상식에 교체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한다 만, 땅의 상식에 사로 잡힌 사람들의 "성 정체성 장애"등의 세상적인 논리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성경은 종말의 날 성전, 즉 하나님을 예배 장소로 교회가 붕괴하고 그 토대가 무너지는 것을 반복 반복 말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 교리 나 가르침이 뒤집어 질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같은 날을 말한다>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의 토대가 뒤집어 질 날이 올 등이라면, 황당한 교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이 날은 성경 곳곳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서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2: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에서는 배교가 먼저 발생으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등을 돌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날이 올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을 빌리면, 방금 전부터 보고 있는 궁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 교회의 토대 근본 교리가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배교와 불신과 연동하도록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이 인물 이야말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를 마련해 자신 이야말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그려져 있습니다. 궁은 종종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 장소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은 한 명 밖에 없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날은 ぬけぬけと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몰아 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예언되어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쫓아 내고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그가 "자신 이야말로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한다고 쓰여져 있는 이상, 이것은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 상상은 그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서 그 전에 전세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과 중상, 나쁜 소문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세계의 과학, 역사 학자, 언론, 정치인 등이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는 엉뚱한 사기꾼 복음서는 사기의 책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그를 믿는 사람들조차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그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9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판이 땅에 떨어진 후, 적 그리스도가 환호성과 함께 배교의 교회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것에 눈을 증지 하고 이 시대에 걸 맞는 행보를 유의합시다.



- 이상 -

복음의 혐의로 체포 된 미국의 목사들

'하나님에게 복종을 선택한다면' E3

이것은 뭔가 말씀을 느낌 아닐까요? 예수님께 순종하여 하늘 나라를 상속 한 것은 앞의 두 사람의 증언 "제출"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하신 말씀,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의 말하는 것을 최후까지 따라 하늘 나라를 상속 패턴 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의 발걸음" = "천국의 상속"이라는 공식이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것을 이해했다면 그렇게 걸어 가면 좋은 것은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나름대로 표시된 수 있으므로 조금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발걸음"는 확실히 훌륭한 것입니다, 혹은 전세계 모든 기독교인이 완수되면 소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면의 이야기도 두고 싶습니다. 매우 귀한 발걸음은 있습니다 만,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라고 하면, 성경에도 써 있듯이, "십자가의 원수가 기독교인이 많다"는 것도 이해하면서 행보라는 것은 한마디 말씀 드리지만 네요. 이것도 성경에 써있는 것입니다 만, 요점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은 좁고 찾는 이가 드문"라고 쓰여 있는데로 이기 때문에... 이 것은 뒤집어 말한다면 멸망하는 크고 넓은 길을 많은 기독교인은 선택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많은 기독교인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이해하려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순종"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을 걸어가는 사람을 결눈질하면서 행보 때문에"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 간다!" 결단에 플러스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각'과 '각오'도 필요하다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것을 감안하고 "하나님께 제출 발걸음 '에 철저 간다면 그리고 최후까지 완수한다면, 그리스도인 들어갈 곳, 즉"하늘 나라 "로 들어갑니다. 왜 단언 할 수 있습니까? 라고하면, 방금 얘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다 때문입니다. 그들은 최후의 최후까지 예수님을 제출하여 훌륭하게 하늘 나라를 상속 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대에 그들과 같은 행보를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제출 발걸음 '을 가리지 않는 때 어떻게 되는지? "제출"또는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라는 것입니다 만, 그러한 행보를 해 나갈 때 사탄에 이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탄의 뜻과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올바른 기독교인을 박해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입니다 만, 불순종하는 사람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행보를 아무런 또는 방해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곧 할 예정이었다 "천국"에서 훌륭하게 분리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신에게 복종 하는가? 하지 않는가? 에 대해 아마 "중간"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행보는 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선택의 반복 인 것은?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출 발걸음'을 평생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을 느꼈다면, 꼭 실천해보십시오. 항상 중요한 것을 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영예가 있기를 빕니다.